

## 호세 마르몰의 『아말리아』에 나타난 역사성

고혜선\*

단독/단국대학교

**Ko, Hye-Sun (2012) "Historicity in *Amalia* of José Mármol"**

### ABSTRACT

*Amalia*, José Mármol's novel,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ajor novels of romanticism due to its main theme "love". On the other hand it is considered to be a historical or political novel because it describes the political situation of mid-19th century Argentina. This essay focuses on how the history is reflected in the novel, as well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author's view and the real history of the narrated events.

The main character derived from Argentine history is Juan Manuel de Rosas, governor of the province of Buenos Aires from 1829 to 1835 and of the Confederación Argentina from 1835 to 1852. During his first term, Rosas ruled with strict authority, but he enjoyed widespread support of the people because many had tired of the previously anarchic and disorderly situation. At the end of the term, the congress asked him to continue as governor but he refused to accept it without receiving a *Suma del Poder Público*. Finally, the congress gave it to him, but he also requested the referendum to confirm it and got the support of the people. During his second term, his rule was imposed with greater strictness, and he repressed the leaders of the Unitarios and the members of the Asociación de Mayo. These dissidents had to flee to neighboring countries like Uruguay.

The novel describes the political situation of Argentina from May to October. Sometimes the author uses government documents,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political figures, newspapers, and other sources which give historical value to the novel.

**Key Words:** Rosas, Buenos Aires, dictatorship, unitarios, federales / 로사스, 부에노스 아이레스, 독재, 우니타리오, 페데랄

---

\* Hye-Sun Ko is professor of Spanish at Dankook University (Email: hyesunko@hotmail.com).

## 서론

식민지 독립 후 중남미제국에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은 권력쟁탈전이며 그 대부분의 경우 독립전쟁에 참여한 군벌이 주역이다. 1810년의 독립선언에 이어 1824년까지 독립전쟁을 치른 아르헨티나 역시 예외가 아니다. 나폴레옹의 프랑스를 모델로 한 중앙집권주의를 지지하는 유니타리오(Unitario)<sup>1</sup>와 연방식 정치를 모델로 하는 페데랄(Federal)은 각기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내전상태에 돌입하며 이 상황은 1820년에서 1861년까지 이어진다.

1829-1852년까지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의 주지사였던 로사스(Juan Manuel de Rosas)는 특별한 정치적 색채 없이 주지사에 선출되나 유니타리오들이 자신을 공격하자 페데랄로 선회한 인물이다. 그의 치정기간 중 1835년에서 1852년은 아르헨티나 연맹(Confederación Argentina)으로 명명되는 시기로 대내적으로는 각 주의 자치권을 인정하나 외교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주에 일임한 것이 특징이다. 20여년에 걸친 그의 집권기간 동안 정치권은 로사스 파와 반 로사스 파로 나누어 정쟁을 치루며, 이 갈등은 우루과이로 망명한 유니타리오 및 페데랄 비주류<sup>2</sup>가 프랑스, 우루과이를 개입시킴으로써 첨예화 되고, 볼리비아, 파라과이, 브라질 및 프랑스, 영국과의 갈등이 증폭된다.

로사스 혹은 로사스 시대를 비판한 글 중 동시대인이 쓴 것으로는 파스 장군(José María Paz)의 『비망록』(*Memorias Póstumas*)이 있다. 이 책은 로사스와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었던 작가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한 기록이다. 또 다른 저자 리베라(José Rivera Indarte)는 『로사스와 정적들』(*Rosas y Sus Opositores*)에서 로사스를 신랄하게 비판했으며, 살해자 1명 당 1페니를 주겠다는 프랑스 회사의 제안으로 쓰기 시작한 『살해자 명단』(*Tablas de Sangre*)에서는 살해당한 이들과 살해방법을 기술하면서 돈을 더 받기 위해 자연사한 이들의 명단을 포함하기도 했다. 또한 리베라는 『로사스 살해는 성스러운 행위』(*Es Acción Santa Matar a Rosas*)에서 로사스가 딸 마누엘리타(Manuelita)와 부정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매도했다.

문학적 차원의 완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작품으로는 에체베리아(Esteban Echeverría)의 『도살장』(*El matadero*), 사르미엔토(Juan Domingo

1 Unitario와 Federal은 고유명사이므로 이후에는 한국어로 음역해서 적기로 한다.

2 로사스의 1기 집권 후 반 로사스가 된 federales cismáticos.

Sarmiento)의 『문명과 야만』(*Civilización y Barbarie*), 마르몰(José Mármol)의 『아말리아』(*Amalia*)가 있다. 에체베리아의 『도살장』은 장마로 인해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수송되는 쇠고기가 부족해지면서 벌어지는 도살장의 상황을 그림으로써 로사스의 정치를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사르미엔토의 『문명과 야만』은 키로가(Juan Facundo Quiroga)라는 실존인물을 중심으로 당시의 아르헨티나 역사 및 상황을 분석하면서 로사스 체제를 비판하고 있다. 마르몰의 『아말리아』는 로사스의 독재로 인해 비극으로 끝나는 젊은이들의 사랑을 그려냄으로써 사회적 낭만주의 소설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실존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이들 간의 서신과 관련문서를 제시하면서 당시의 사회상을 그려냈다는 점에서는 역사소설로 평가받으며, 한 시대의 정치행태를 조명했다는 차원에서는 정치소설로 분류되기도 한다.

마르몰(1818-1871)은 로사스의 학정을 피해 1839년 몬테비데오로 망명했다. 그의 소설 『아말리아』는 1840년의 약 5개월여에 걸친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외교적 상황을 담고 있으며 1851년 자신이 발행했던 신문에 연재소설로 실기 시작했다. 1851년 로사스 정권은 정적 우르키사(Justo José de Urquiza)에게 외교권을 박탈당할 정도로 취약해 있었으며 결국 그의 정치생명은 1852년 2월에 끝난다. 로사스 정권 전복 후 마르몰은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돌아왔으며 『아말리아』 2부를 완성해서 1855년에 출판했다.

본고는 역사소설 『아말리아』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논할 것이다. 이를 위해 1840년의 아르헨티나 정치 주역들에 대한 작가의 관점과 역사가 및 전기 작가의 관점을 비교할 것이며, 또한 마르몰이 그려내는 당시의 정치상황과 역사적 기술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 정치주역

### 로사스

마르몰이 그려낸 로사스의 외모는 화가들의 초상화와 유사하다. 그러나 ‘눈에 거슬리는 인상, ‘어둡고 영원히 까만 밤의 의식에 묻힌 모습’(106)<sup>3</sup>이라는 묘사를 통해 부정적인 요소를 부각시킨다. 또한 로사스를 ‘반은 호랑이 반은

3 여기서 제시하는 쪽수는 1968년의 Kapelusz판을 기준으로 한다.

여우, 반은 비극적 반은 희극적인 성격을 가진 즉흥성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400), '독재자의 마음에서 자라나는 독사인 불신에 사로잡힌 인물로 인생 때 순간, 자신이 행하는 행동 모두에 불안과 두려움이 감지되는 존재'(393-394)로 평가하면서 반대파에 대해서는 '언제 가격할지까지도 계산에 넣는다. 누구를 살해할 것인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언제 흘리게 해야 하는가를 계산하며 대상자의 이름이나 사회계층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326)고 기술했다. 이를 종합한다면 마르물은 로사스를 불가사의한 인물, 불신에 가득 찬 인물, 베일에 싸인 인물, 예측 불가능한 양면성을 지닌 인물, 변덕스런 냉정한 인물로 간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로사스에 대한 다른 작가 혹은 역사가들의 기술과는 차이가 있다. 로사스의 조카였던 만시아(Mansilla 2008)는 로사스가 들판에서는 농부였고 소시민이었으나 국가 차원에서는 조국을 이야기하며 지방발전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로사스는 변덕쟁이가 아니었다면서 그를 비뚤어진 인물로 메마르고 차갑게 그린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만시아는 로사스와의 여러 일화를 소개하면서 유년시절 외삼촌이 자신을 골려준 일화, 유럽 유학에서 돌아왔을 때 집으로 초대해서 통명스럽게 대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느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외삼촌이 양면성을 가지기는 했으나 차갑거나 변덕스런 인물은 결코 아니었다고 회상한다. 로사스의 인간적인 면에 감동한 팜파족 추장 카트리엘(Catriel)은 로사스 집권 2기 축하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후안 마누엘은 내 친구다.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속인 적이 없다. 나와 우리 인디오 모두는 그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가 없었더라면 지금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형제처럼 어울려 살지도 않았을 것이다. 후안 마누엘이 살아 있는 동안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가족 옆에서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것이다.<sup>4</sup>

위의 연설은 로사스에 대한 깊은 인간적 신뢰를 보여준다. 실제로 로사스는 인디오들과의 폭넓은 교감을 위해 스스로가 인디오 언어를 배워 그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으며 그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려 노력했다. 천연두가 창궐했던 시절 로사스는 인디오 족장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스스로가

4 Castagnino, Leonardo(2009), *Juan Manuel de Rosas, Sombras y Verdades*, Buenos Aires: Fabro, p. 39.

면역주사를 맞았다(Castagnino 2009). 인디오들이 ‘외래 악마’<sup>5</sup>인 천연두에 대한 두려움으로 면역조차 거부하자 자신이 직접 시범을 보임으로써 이들을 설득한 것이다.

『아말리아』의 1부 4장의 저녁식사 장면에서 로사스는 자신의 집에 기거하던 비구아<sup>6</sup>에게 딸의 입에 키스하라고 강권하고, 술에 취한 비구아가 딸을 쫓아가 키스하려하자 딸이 놀라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파안대소한다. ‘비구아는 물라토 출신으로 인간으로서의 지력이 전혀 없는 존재이며 야만의 전형’이다(97). 로사스는 실제로 자신의 팔레르모 저택에 광대 같은 인물들을 기거하게 했다. 카스타그니노는 로사스의 반대파들이 그의 식객인 광대에 대해 많은 일화를 지어냈다고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로사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역사자료가 부족하자, 몇몇 반 로사스 역사가 들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지어냈다. 이 이야기들은 입증조차 할 수 없는 것들로 [...] 그중의 하나가 로사스가 비구아와 에우세비오를 학대하면서 즐겼다는 것이다. 로사스가 이들과 함께 망중환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들을 학대함으로써 즐긴 것은 아니다. 로사스는 비구아와 에우세비오가 자신의 적들을 회화시키는 패러디를 보고 즐겼으며, 때로는 그 스스로도 패러디에 참여함으로써 이들과 함께 웃음을 터뜨린 것이다. 이들이 로사스의 팔레르모 저택에서 로사스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고 심지어는 같은 식탁에서 식사까지 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sup>7</sup>

카스타그니노의 기술처럼 그의 정적들은 로사스를 비하하는 많은 일화를 지어냈으며 심지어는 마누엘리타와 에우세비오를 연인관계로 규정하기도 했다. 로사스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다 상처를 입고 불구가 된 에우세비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자신의 집에 기거하게 함으로써 은혜를 갚으려 했을 뿐이다. 로사스가 이들과 함께 반대파 정객 혹은 자신을 방문한 사람들을 흉내 내고 웃으며 망중환을 보내긴 했으나 마르몰이 그린 것처럼 딸까지 조롱대상으로 삼은 이상성격의 소유자는 아니다.

마르몰은 로사스의 기질을 가우초와 비교했다. 야만성의 상징인 가우초에게 말, 칼, 밧줄, 팡야는 생존의 필요충분조건이며, 이들은 ‘자신보다 힘센 자들에게

5 인디오들은 천연두를 gualicho del hunica로 불렀다. 마푸체어로 gualicho는 악마, hunica는 외국을 의미한다.

6 『아말리아』에서는 Viguá, Leonardo Castagnino는 Biguá로 적었으나 동일한 인물을 지칭한다.

7 Castagnino, Leonardo(2009), pp. 69-70.

만 복종하는 존재이고, 여기에 덧붙여 문명의 모든 악조건을 갖춘 로사스는 가우초 중의 가우초'(501)라고 말했다. 가우초는 또한 '주인의 명령만 따르는 무식한 노예로 주인의 의지와 주인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못된 본능을 따라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존재'(506)로 바로 이 가우초 기질이 로사스를 '무식하고 교양 없는 전제자'(651)로 만들었다고 단언했다.

들판을 삶의 터전으로 사는 가우초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용기, 충성, 우정이다. 야생의 기질을 가진 이들은 죽음을 불사하며 목장주가 유니타리오이면 유니타리오로, 페데랄이면 페데랄로 전쟁에 참여할 정도로 주인에 대해 충성스럽고 동료애로 뭉쳐있다. 로사스는 부친과의 갈등으로 15세에 집을 나와 친척 안초레나(Nicolás Anchorena)의 목장에서 일할 때 이들의 삶을 근거리에서 지켜본 인물로 배신을 가장 중요하는 이들의 기질을 잘 이용할 줄 알았다. 또한 가우초들의 충성에는 반드시 보상을 해줌으로써 이들의 전폭적 지지와 존경을 받을 수 있었다.

로사스의 지지층이 가우초나 인디오, 흑인과 같은 소외계층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라비그나니(Emilio Ravignani)는 *Ni con Rosas ni contra Rosas*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로사스의 친구들은 중요한 사람에서 비천한 출신까지 다양했다. [...] 내륙의 페데랄파 친구들과는 깊은 우정을 나누었으며, 이들 중에서 에스타니스라오 로페스, 후안 파쿤도 키로가와는 1831년부터 (아르헨티나)연맹을 조직했다.<sup>8</sup>

로사스는 자신의 친구였던 주지사들과는 깊은 우정을 나누었고 자신의 친구에 위해를 가한 존재는 적으로 간주했다. 그가 키로가의 암살 이후에 반대파에 대한 압제를 강화한 것은 신의는 흥정 대상이 아니라는 신조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로사스는 사변적이라기보다는 생각한 바를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라비그나니는 로사스가 행동파였으며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의 소유자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부류 사람들은 사변적인 각료, 이론에 능한 지식인을 태생적으로 싫어한다."고 말했다(Luna 2004, 53). 마르몰은 로사스가 '부하들과 필요한 물건을 대동하고 모든 곳에 가는 존재'(85)라고 적었다. 실제로 로사스는 자리에 앉아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현장을

8 Luna, Félix(2004), *Juan Manuel de Rosas*, Buenos Aires: La Nación, p. 57.

찾아 해결책을 모색하는 인물이었다. 다만 그의 정적들은 이러한 그의 행동 양식을 가우초적인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반 로사스 진영의 혹평에도 불구하고 로사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지지는 확고했다. 독립전쟁 때부터 지속된 군벌출신 정치가들의 정쟁에 지쳐있던 국민들은 1835년 로사스가 비상대권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자 전폭적인 지지로 화답했다.

평화를 갈망하던 시민들은 그의 출현을 하나의 축복으로 받아들였고, 그가 2년간의 잔인한 정변을 종식시켜 줄 것을 고대했다. [...] 비상대권에 대한 국민투표는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 현재까지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충실히 증언한다면, 로사스 정권만큼 국민이 선호하고 원했던 정권은 없을 것이다.<sup>9</sup>

위에서 보듯이, 로사스의 강력한 비판자의 하나였던 사르미엔토조차 당시의 국민투표가 로사스에 대한 국민의 신망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로사스 정권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동시에 사르미엔토는 유니타리오들이 국민투표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비주류 페데랄 역시 반대운동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술함으로써 모든 상황이 로사스에게 유리했음을 암시했다.

로사스는 공사를 엄격히 구분했다. 소설에서는 로사스가 비밀조직이었던 마소르카(Mazorca) 대장 쿠이티뇨(Ciriaco Cuitiño)에게 방금 은행에서 갓 나온 신권을 한 묶음 건네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은 마치 로사스가 공금을 사용하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실제로 그의 정적들은 로사스가 공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권을 잡았을 당시 로사스는 이미 거부였으며, 치정기간동안 자신의 사업자금과 공금을 엄격히 구분했고, 그의 돈에 대한 정직성과 치밀성은 가장 강력한 반대파들까지도 인정할 정도였다(Castagnino 2009). 로사스는 목장을 경영하고 육류가공업에 종사하던 사업가로 재력이 충분했으며 주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개인 사업을 지속했다. 그가 망명지로 떠날 때 가지고 갔던 모든 문서는 공금 사용을 얼마나 엄격하게 했는가를 입증한다. 그러나 그가 권좌에서 물러나자 정적들은 로사스의 모든 재산을 압류 처분했으며, 이로 인해 로사스는 피폐한 말년을 보냈다.

9 Sarmiento, Domingo Faustino(1997), *Civilización y Barbarie. La Vida de Juan Facundo Quiroga*, <http://www.elaleph.com>, p. 214.

마르몰은 로사스의 인생역정이 ‘우연의 연속인 행운아로 노력이나 능력과는 관계없다’(85)고 판단했다. 즉, 목장주, 사업가였던 인물이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것, 걸출한 군사전략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것 모두를 우연의 소산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마르몰의 시각은 로사스 승리 원인의 상당 부분이 반대파들의 분열과 자신감 결여에 있었음을 간과한 것이다.

### 로스스 주변 인물

소설에 등장하는 로사스의 가족은 딸 마누엘리타, 처제인 마리아 호세파 (María Josefa Ezcurra)이다. 정치인으로는 경찰총장, 마소르카 대장, 신문 편집장, 비서, 장관들, 영국 공사 맨더빌(Mandeville)이 있다. 이 중에서도 마르몰은 마소르카 대장 쿠이티노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쿠이티노는 로사스를 직접 면담하고 보고하는 소수 인물의 하나로, 마르몰은 5장 전체를 ‘인간 단두대’(105) 쿠이티노의 악행고발에 할애하면서 그가 명석하지 않음을 암시했다. 경찰 특수부대 대장이었던 그는 1833년에 결성된 민중협회(Sociedad Popular Restauradora)의 회원으로 이 협회의 행동대였던 마소르카 조직을 이끌었다. 그의 도덕성, 충성심은 로사스의 반대파에게도 인정을 받을 정도로, 역사가 라모스(José María Ramos Mejía)는 쿠이티노가 인간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도덕적이며 행실이 올바른 사람이었고, 부하로 보았을 때에도 상사를 감동시키는 인물이라고 평했다.<sup>10</sup>

마르몰이 조명한 또 다른 인물은 마리아 에스쿠라이다. 로사스의 처제로 그의 딸 마누엘리타의 후견인 역할을 한 그녀는 1838년 딸 자신의 언니 (Encarnación Ezcurra)가 죽은 다음 정치의 전면에 나섰다. 그녀는 쿠이티노를 통해 정보를 보고받고 지시도 내리나 자신의 독자적 정보원을 운용하기도 했다. 또한 자신의 집에 유력인사들을 초대해서 부부 동반 사교모임을 개최했고 이러한 모임을 통해 자선사업 기금을 확충할 수 있었으며,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그녀는 하루에 세 번이나 로사스를 방문해서 자신이 독자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전달하고, 지인들을 위해 청탁도 마다하지 않았다. 출세를 꿈꾸던 이들은 그녀에게 자선사업 기금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했으며, 그녀는 이 돈의 일부를 챙김으로써 사욕을 채웠다. 권력 주변 인물

10 Ciriaco Cuitiño(2011), <http://www.lagazeta.com.ar/ciriaco.html>

중에서 그녀가 가장 경계하는 인물은 경찰총장 빅토리카(Victorica)였다. 심지어 ‘후안 마누엘 스스로가 빅토리카를 치게 만들어야지’(363)라고 공언할 정도로 빅토리카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낄 정도였다. 마르몰은 ‘그녀의 단점이 자신의 일을 떠벌리며 자랑하고, 빅토리카 욕을 하고, 자기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이 자신을 숭앙하기를 원하는 것이다’(147)라고 적었다. 이것은 그녀가 자기애가 강한 인물로 로사스를 제외한 그 누구도 그녀 위에 존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임을 뜻한다. 또한 그녀의 외모에 대해서는 못생겼고, 늙었으며, 치아도 없고, 악취가 난다라면서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마리아 에스쿠라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았던 자유분방한 여인이었다. 마르몰의 펴뮈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초상화는 그녀가 상당한 미모를 갖춘 매력적인 인물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녀의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못했다. 5월 혁명에 동조하지 않은 남편이 스페인으로 돌아가고 혼자 남은 상황에서 얼마 후 남편의 죽음이라는 소식을 접한 것이다. 남편의 유산을 물려받은 그녀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편이었다. 자신이 개최한 사교모임에서 만난 벨그라노(Manuel Belgrano)와의 사랑, 도피, 임신은 당시 사회통념을 거스르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나 그녀는 당당한 자세로 일관했다.<sup>11</sup> 벨그라노와의 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하자 로사스 부부는 그녀가 낳은 아들을 입양해서 대신 키웠다.

마르몰은 로사스의 딸 마누엘리타를 교양 없는 어머니에게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가엾은 존재라면서도 긍정적으로 그려냈다. 소설 속의 마누엘리타는 이모인 마리아 호세파의 사교모임에도 흥미를 못 느끼며 정치인들에 대한 막연한 혐오감에 시달린다. 대신 작중인물 베요 일행에게 이끌리며, 베요는 그녀의 순수함을 이용해서 아말리아의 신원 보증서를 만들고, 이 보증서 덕분에 쿠이티뇨의 추적을 피하기도 한다. 마누엘리타는 로사스의 고명딸이었다. 모친의 사망 이후 그녀의 하루는 아버지 로사스의 일정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녀는 집안의 안주인으로 부친의 수발을 들었으며, 외부 손님이 올 경우에는 영부인 역할을 했고, 모든 이들에게 칭찬을 받는 인격의 소유자였다.

경찰총장 빅토리카에 대한 마르몰의 시각은 흥미롭다. 마르몰은 로사스 정권 하수인 가운데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빅토리카를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11 Carmen Verlichak가 쓴 *María Josefa Ezcurra, el amor prohibido de Belgrano* (Buenos Aires: Editorial Sudamericana, 1999)에서는 그녀가 상당한 미모의 소유자로 매력적인 여성으로 그려진다.

마르몰이 감옥에서 닷새를 지낼 때 그에게 온정을 베푼 적이 있었기 때문에 판단된다.

## 반 로사스 파

반 로사스 진영의 구성원들은 정치인 그룹과 청년문화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정치인 그룹의 대부분은 우니타리오였으며 청년문화인 그룹의 대부분은 아르헨티나의 '37세대'로 불리던 5월 협회(Asociación de Mayo) 소속이었다. 소설이 그려낸 1840년의 이들의 활동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은 알베르디(Juan Bautista Alberdi)와 라바에이다.

에체베리아와 함께 5월 협회의 지도자였던 알베르디는 1838년 몬테비데오로 망명했다. 1837년 우루과이에서 반 로사스 파인 리베라(Fructuoso Rivera)가 오리베(Manuel Oribe) 정권을 전복시키고 1838년 프랑스가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봉쇄하자 알베르디를 위시한 5월 협회 회원들은 두 나라의 도움으로 로사스 체제를 전복시킬 계획을 세웠다. 외세를 끌어들여야 하는 이들의 논리는 알베르디의 말에서 드러난다. 즉 같은 나라 태생이라고 모두가 형제일 수 없는 반면 외국인도 인간적이면 형제일 수 있고 따라서 독재를 종식하는데 외국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로사스 체제 종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라바에에게 협조를 구했다.

라바에는 이들 청년그룹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이들을 바보 취급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라고 판단했으며 외세 개입 없이 아르헨티나 국민의 힘으로만 로사스를 전복시켜야한다고 믿었던 인물이다. 그러나 알베르디의 지속적인 청원, 특히 라바에 외에는 영도력을 발휘할 책임자가 없다는 청송 앞에서 그는 군대를 이끌고 아르헨티나 연맹의 일원이었던 페데랄 계열 주지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1840년 2월 엔트레리오스를 공격해서 승리하나 곧 이어진 사우세 그란데 전투에서 패배했다. 프랑스 함대의 도움으로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산페드로로 도주한 라바에는 시 인근에 캠프를 차리나 부대원들의 탈영으로 전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라바에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외곽지대에서 민중봉기를 기다리는 한편 프랑스 보병 3,000명이 올 것을 기다렸으나 허사였다. 국민들은 그가 페데랄 출신 도레고(Manuel Dorrego) 주지사를 살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았으며, 증원부대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프랑스는 보병 대신에 봉쇄조치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관만 보냈다. 그가 9월 내내 미동도

안하는 사이 로사스 군대는 17,000명으로 강성해졌고 라바예는 1,100명의 절대적 열세에 처했다. 그는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포기하고 산타페 주지사를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퇴각시켰다. 이때부터 그를 칭송했던 유니타리오들과 청년그룹은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에체베리아는 라바예가 모든 것을 손아귀에 쥐었으나 잃어버리고 말았으며 그를 머리가 없는 짐에 비교했고, 자신들을 패배와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비난하는 시를 썼다. 라바예는 이 청년 문인들의 궤변에 절망했다. 라바예는 자신이 앞장서서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침공한다는 계획을 세운 사람이 아니었다. 카스타그니노(2009)에 의하면 몬테비데오의 유니타리오들이 그를 방문하거나 편지를 써서 프랑스가 도울 것이 분명하다며 공격을 독려했고, 5월 협회 소속 청년그룹은 프랑스측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도록 청했다. 결국 라바예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국민의 봉기, 프랑스 보병 지원부대를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아말리아』에서는 작중 인물인 베요를 중심으로 국내에 거주하던 반 로사스 세력의 활동과 몬테비데오에 거주하던 반대파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르몰은 특히 반대파의 희망이었던 라바예 부대의 상황을 상세히 적었다. 라바예가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침공하면 국내의 반 로사스 파가 총궐기한다는 것이 이들의 복안이었기 때문이다. 산토스 루가레스에서의 대치 상황은 5부 2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으며 그 후의 상황은 각 군부대의 서신을 이용해서 기술했다. 또한 라바예 외에도 파스, 라마드리드 장군의 활약에도 많은 페이지를 할애했다. 그러나 라바예의 퇴각 후, 마르몰은 이번 역시 ‘로사스가 승리 없는 승자’(650)였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한 마르몰은 반 로사스 정치권이 ‘자기변명에 능하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현실조차 왜곡시킨다’(330)며 비판을 가했고, 라바예가 사우세 그란데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역사적 사실조차 승리로 왜곡시켰다. 마르몰은 ‘유니타리오들은 그 누구보다 더 환상에 사로잡힌 자들’(343)로 판단했다. 유니타리오에 대한 마르몰의 부정적 시각은 몬테비데오에 거주하던 반 로사스 진영이 서로 반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들의 반목은 로사스 또한 익히 파악하고 있었다. 영국 공사 맨더빌 또한 ‘리베라와 아르헨티나 이민자들 간, 리베라와 라바예, 반 로사스 진영과 리베라, 이들 간의 의사소통 부재 상태가 지속된다’(399)라고 로사스에게 보고했다.

## 1840년의 상황

### 1840년의 의미

아르헨티나 역사에서 1840년은 로사스의 정치적·외교적 완승을 의미한 해이며 반대파에게는 공포와 좌절의 한 해로 정의할 수 있다. 소설 『아말리아』는 바로 이 1840년의 가장 긴박했던 5월부터 10월까지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첫째는 5월 4일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항구책임자였던 린치 대령(Francisco Lynch)과 그 일행의 죽음, 둘째는 9월 6일 반대파의 지도자인 라바예 장군 군대가 퇴각한 사건, 셋째는 2년에 걸친 프랑스의 해안봉쇄가 해결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첫 번째 사건은 로사스가 1839년에 발생한 반대파의 무력봉기를 성공리에 진압한 후 야권인사 탄압을 강화시켰고 이를 피해 몬테비데오로 망명하려던 린치, 올리덴(Isidoro de Oliden), 마이손(Carlos Maisson), 리글로스(José María de Riglos)가 5월 3일 밤과 4일 새벽 사이에 라플라타강 유역에서 기습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진 것이다. 이것은 실제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시 유일한 생존자가 살바도레스(José María Salvadores)이다. 그는 공격 당시 가벼운 상처를 입고 우물 안으로 피신했고, 후에 자신의 집에서 로사스 정권이 끝난 1852년까지 유배 아닌 유배생활을 했으며 심지어 그의 생존 사실은 자식들조차 몰랐을 정도였다.

두 번째 사건은 국내 거주 반 로사스 파와 우루과이의 해외망명파가 라바예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침공과 동시에 거사를 일으켜 로사스 정권을 전복할 예정이었으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인근에 군대를 포진시킨 라바예가 전투다운 전투 한번 안하고 퇴각해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반 로사스 진영은 좌절에 빠진다. 또한 라바예가 이후 오리베에게 패하면서 로사스의 영향력은 아르헨티나 전역으로 확장된다.

세 번째 사건은 1838년 3월 28일부터 시작되어 2년이 넘도록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던 프랑스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해안 봉쇄가 영국의 중재로 해결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중동과 알제리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프랑스로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사태를 해결해야했고, 교역중단으로 인해 내륙지방의 원성이 높아지던 시점에 처한 로사스로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했다. 봉쇄문제는 결국 이해 10월 29일에 해결을 본다.

## 공포정치 시대

사르미엔토(1997)는 1832-1845년을 로사스의 공포정치시대라고 규정했다. 제 2기 집권에 속하는 이 기간에 로사스는 자신의 사조직을 이용해서 질서 회복이라는 명분하에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이런 이유로 로사스 정권 추종자들은 그를 질서회복자(Restaurador) 혹은 탁월한 법 수호자(Ilustre Defensor de Leyes)로 불렀다. 그러나 그의 반대파들은 독재자(dictador, tirano)로 불렀다.

역사가 루나(Felix Luna)는 로사스를 ‘가장 모순적이며,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고, 영원히 정의하기 어렵고 애매모호한 존재’<sup>12</sup>라고 평가했다. 지방정부에 자치권을 부여한 미국식 연방이 모델이었던 페데랄파에 속하면서도 우니타리 오가 주장한 중앙정부 중심의 정치를 펼쳤고, 무질서를 타파하기 위해 스스로가 법 수호자로 자처하면서도 가장 무법적이었고, 프랑스의 압력에 대항해서 국가의 주권을 지켜냄으로써 아르헨티나라는 신생국의 위력을 보여준 로사스는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통치자임에 틀림없다. 현재까지도 그에 대한 의견은 비난과 칭송이 교차하고 있다. 사바토(Ernesto Sábato)의 말을 보자.

후안 마누엘 데 로사스의 망명은 정치적·정신적 미성숙을 보여주는 슬픈 예다. 그는 강대국들, 그리고 외세를 끌어들이던 아르헨티나 내부의 적들로부터 국가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인물이다. 하찮은 것들을 기리느라고 공공장소에 그 이름을 갖다 붙이는 부에노스 아이레스같은 도시에 로사스나 키로가와 같은 인물들을 기리는 거리 하나가 없다는 것은 비극이다.<sup>13</sup>

로사스는 1842년의 연설에서 자신은 국가를 구하기 위해 신이 축복을 내린 전제자라고 했다. 독재, 혹은 전제주의의 특징은 한 개인 혹은 소수의 그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리더 숭앙작업이 이루어지며,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반대파를 제거하는 것이다. 로사스의 독재에 대해 카스타그니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독재정권은 자발적으로 태동되거나 한 인간의 의지로 태동되는 것이 아니다.

12 Roffo, Anafia(1999), *Félix Luna, Palabras de un historiador, En busca de la memoria Argentina*, Buenos Aires: Editorial Sudamericana, p. 72.

13 “Juan Manuel de Rosas”(2011), <http://www.lagazeta.com.ar/rosas.html>

의회는 로사스에게 ‘비상권력’을 위임하면서 주지사로 임명했고, 이 권한은 이미 로사스 이전의 정권들도 누렸던 것이다. 로사스 2기 집권기에도 이 권한이 주어졌으며, 다만 로사스는 비상대권에 대한 국민투표를 발의한 것뿐이다.<sup>14</sup>

그의 독재는 이미 1829년 로사스가 주지사로 선출되었을 때부터 예고되었다. 당시 부에노스 아이레스 의회는 그에게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 법률 조직 복원자’라는 칭호를 수여하며 새로운 의회를 구성할 때까지 통치에 필요한 비상대권을 위임한다. 당시 취임식에서 행한 ‘왕은 사랑하고 별주고 다독이는 아버지 같은 존재’<sup>15</sup>라는 로사스의 연설은 그의 정치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예고하고 있었다. 그의 집권 1기의 독재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한정된 것인 반면, 1835년의 집권 2기 독재는 전국으로 확장되었다. 반대파 제거 혹은 탄압은 이들의 살해, 투옥으로 이어지며, 반대파로 의심되는 자와의 회동조차 연행으로 이어졌고, 심지어는 유니타리오의 상징색인 하늘색 꽃을 꽃았다는 이유만으로도 감옥행이 될 수 있었다.

소설에서도 이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많다. 일례로 페데탈을 입증하는 표식, 여자들의 머리 리본, 가슴에 붙이는 표식이 없으면 반대파로 간주되었으며, 그의 통치기간 동안 양식 있는 사람들은 숨죽이고 산 반면, 암살자 그룹, 시장 상인, 흑인, 물라토들은 거리를 활보했다. ‘사회는 암살자와 희생자의 두 부류로 나뉘었고’(64) ‘경제적 여건이 있는 용감한 이들은 망명을 택했다’(87). 마르몰은 ‘아르헨티나 국민의 개인주의’(658)를 비난하면서 작중인물인 베요의 말을 빌려 ‘고발이라는 문이 활짝 열렸다. 단 한명의 악명 높은 정권하에서 한 가족의 목숨과 운명이 마소르카의 손에 좌지우지되었다’(66)라고 했다. 로사스는 사회 분열의 현상을 확인하고 고발을 조장함으로써 이들의 타락을 조장했으며 상호 비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독재정치를 유지했다고 본 것이다. 또한 ‘감옥은 죄수로 넘쳐났으며, 거리는 피로 물들고, 가족이 해체되고, 자식을 바라볼 때마다 부모는 작별의 눈인사를 건넸다’(668)고 했다.

특히 1840년은 공포의 시대로 불릴 정도로 반대파 탄압이 극에 달했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1839년 반 로사스 진영의 무장봉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대파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남부 일원을 중심으로 남부해방군을 형성해

14 Castagnino, Leonardo(2009), p. 17.

15 “Juan Manuel de Rosas”(2011), [http://es.wikipedia.org/wiki/Juan\\_Manuel\\_de\\_Rosas](http://es.wikipedia.org/wiki/Juan_Manuel_de_Rosas)

서 세력을 규합했다. 이들 중의 하나가 당시 국회의장의 아들이었던 라몬 마사(Ramón Maza)였다. 로사스는 라몬 마사를 체포하도록 했다. 아들의 반역 음모를 알게 된 마누엘 마사는 로사스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와 사직서를 집무실에서 작성하던 중에 살해당했고, 그 직후 로사스는 라몬 마사의 총살을 명했다. 반대파의 투쟁은 지속되나 차스코무스 전투에서 로사스 부대가 완승을 거두며 반대파는 와해되었다. 이 사건 후 로사스의 반대파에 대한 탄압은 더욱 강화되고 부에노스 아이레스 사람들은 압제자와 피 압제자로 양분된다. 로사스 공포정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이 사건은 『아말리아』에서는 단순히 작년의 실패한 혁명으로만 언급된다. 이 사건이 로사스로 하여금 반대파에 대한 증오를 배가시켰고, 이로 인해 무자비한 탄압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했을 수 있으나 작가는 이에 대한 기술 자체를 생략하고 있다.

소설의 5부 3장에는 정부 기밀문서가 등장한다. 로사스는 군대의 장성 및 장교, 정권협력자, 반대자등 총 9,442명에 대한 정보를 보고받은 후 명단 전체를 마리아 호세파에게 보내서 분류 작업하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나온다. 당시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거주인구는 약 40만 이었다(Sarmiento 1999). 그렇다면 세대주는 대략 100,000명이며 로사스가 작성한 약 10,000명에 대한 보고서는 10%에 해당한다. 로사스체제의 주요 지지층이 소상인과 저소득층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류층 거의 전체가 감시 대상이었음을 뜻한다. 마르몰은 ‘반 로사스계가 문화적·도덕적 상위계층의 4/5(438)라고 했다. 당시 인구 분포를 본다면 마르몰의 이 계산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1840년에는 망명객 숫자가 증가일로에 있었다. 일례로 이해 4월 3일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파스장군이 몬테비데오로 탈출하며, 소설의 첫 장 역시 몬테비데오 탈출 실패로 시작한다. 『아말리아』의 등장인물 베요는 아라나(Felipe Arana)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경찰이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막지만 지난주의 망명자 숫자만 40여명에 달한다. [...]’(81)라고 했다. 이들의 목적지는 인근 국가였으며, 특히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가 망명지로 선호되었다. 몬테비데오에 모인 반로사스파는 첫째, 리바다비아 정권 관료, 장군, 작가, 의원들이었던 유니타리오, 둘째, 1833년 이후 로사스에 의해 페데랄 그룹에서 추방당한 로모스 네그로스(lomos negros)로 불리던 비주류 페데랄 정치인들, 셋째, 로사스의 학정에 염증을 느낀 정권 협력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치권과는 전혀 무관한 이들로 프랑스 낭만주의 영향을 받은 청년세대 즉

37세대였다(Sarmiento 1999).

교회 역시 공포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로사스는 1기 집권과 동시에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시켰다. 전임정권들이 교회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한 반면, 그는 교회관련 행사를 재개시켰으며 새로운 교구 창설을 인준했다. 또한 반교회적인 구호 및 서적 금지, 인디오 복음전파, 종교수업 부활, 수도회 재건을 도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가톨릭교회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반대급부 또한 강력했다. 즉 신부들도 붉은 띠를 둘러야했으며, 페데랄 지지 강론을 해야 했고, 종교의식 때에 로사스 초상화를 걸어야했던 것이다. 정부는 신부들도 감시 대상에 포함했으며 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테러의 대상이 되었다. 1836년 로사스의 요청으로 재입국한 예수회는 교육에 전념하나 로사스 정권의 여러 조치에 동조하지 않자 1848년에 재추방당하기 시작한다. 마르몰은 ‘로스스 집단이 자신들이 저지르는 만행에 대해 양심의 가책조차 못 느낀다’고 비난하면서 ‘유일하게 이러한 압제에 감히 저항한 교단이 예수회’(478)라고 말했다.

로스스의 신심은 독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영국처럼 아르헨티나 정부 역시 교회보다 우위에 있어야한다고 믿었다. 로사스의 학정을 고발한 에체베리아가 그려낸 사순절 기간의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보자.

교회는 에픽테토스의 ‘참아라, 금욕하라’는 원칙을 적용해서 일반 신도들의 위를 감시하고 금욕할 것을 명한다. 고기는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 첫 번째 잡은 송아지는 불고기를 아주 좋아하시는 법 수호자에게 바칠 선물이다.<sup>16</sup>

사순절은 육식이 절제된 기간으로 교회는 신도들의 육식을 금지한다. 그러나 도살장 사람들은 육식을 즐겼던 로사스에게 맨 처음 잡은 송아지를 바친다. 이것은 로사스가 교회의 금기사항을 공공연히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언론 역시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정치권의 정쟁은 신문에도 영향을 주어 각 정파의 주장에 동조하는 신문들이 등장하나 로사스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유력지 하나만 살아남았다. 그것이 바로 1832년에 발행된 <가세타 메르칸틸>(La Gaceta Mercantil)로 편집장 마리뇨(Nicolás Mariño)는 『아말리아』에서 권력자 주변을 맴돌며 아말리아를 자신의 여인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과

16 Echeverría, Esteban(1999), *El Matadero*, Buenos Aires: Editorial Cántaro, p. 38.

방법을 가리지 않는 치한으로 그려진다.

### 마소르카의 만행

독재체제 구축을 위해 위정자가 흔히 이용하는 것이 사조직으로 특히 전제주의 유형의 독재체제하의 사조직은 반대파의 뿌리까지 뽑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활동한다. 로사스의 공포정치를 뒷받침한 사조직으로는 민중협회와 경찰에 속한 테러단 마소르카를 들 수 있다.

민중협회는 로사스 부인 에스쿠라가 1833년 자신의 남편의 2기 집권을 겨냥해서 창설했으며 이 조직의 활약으로 로사스는 2기 집권에 성공했다.

후안 마누엘은 낙향했으나 엔카르나시온은 부에노스에 남아서 민중협회라는 정치적 조직을 운용했다. 이 조직은 정치테러 도구였으며, 그들의 타도 대상은 우니타리오와 ‘시스마티코’(페데랄 비주류)였다. 1834년 6월 30일 선거에서 ‘아포스톨리코’(페데랄 주류)가 승리를 거머쥐며, 로사스는 2기 집정을 시작한다. 이 승리의 주역은 엔카르나시온이었다.<sup>17</sup>

1기 집권 후 페데랄은 비주류와 주류로 나뉜다. 전자는 반 로사스 계열로 로모스 네그로스로 불렸으며 향후 반 로사스 진영의 한 축을 구성한다. 후자는 로사스 추종자 그룹으로 민중협회의 핵심 구성원이다. 이들은 약 200여명의 농장주들로 상류층에 속했고, 정기 모임을 통해 그들의 적인 우니타리오와 페데랄 비주류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으며, 이들을 어떻게 제거할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자신들이 직접 반대파를 살해하거나 린치를 가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들의 지시를 이행한 행동대가 마소르카이다.

『아말리아』에서도 마소르카에 대한 언급은 상당히 많다. 이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인물은 리베라이다. 그는 로사스 시대 살해자와 살해방법을 기술한 『살해자 명단』에서 교수형을 지칭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 그 어원에 대해서는 옥수수 알갱이가 촘촘히 박힌 것처럼 단단히 뭉친 조직이라는 설, Más horca, 즉 ‘좀 더 많은 올가미’에서 파생되었다는 설, 혹은 고문을 위해 옥수수를 향문으로 밀어 넣었다는 것에서 유래된다는 설 등이 있으나 소설에서는 más horca와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5월 4일 도강을 꺾하던 린치 일행도 전신이 난자당한 상태에서 교수형에 처해지며, 9월 16일에는 부에노스 아이레

17 Luna, Félix(2004), p. 18.

스 주지사였던 비아몬테(Juan José Viamonte) 장군의 아들인 아벨리노(Avelino Viamonte)가 교수형에 처해진다. 마소르카는 밧줄에 목이 매달린 시신을 공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했다. 마르몰은 마소르카가 ‘그 어느 날 갑자기 지옥에서 나온 피비린내 나고 무지막지하게 생긴 이들이 허리에 거대한 칼을 차고 거리를 활보하며, 무식하고 피비린내 나는 존재’(168)라고 그렸다. 실제로 이들 대부분은 자영업을 하던 상인 혹은 하층민 출신들이었으며, 살해당한 이들에게서 노획한 시계를 보며, ‘시간을 볼 줄 알아야지’(60)라고 할 정도로 무식하다. 마르몰은 이들의 대화를 통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마소르카가 된 것이 아님을 암시한다. ‘일이 잘 안되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때까지는 대장을 위해 살해하는 거야(59)’라는 것은 이들이 로사스의 정치적 추종자가 아니라 생계수단으로 마소르카 대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현금이 지급된 것은 당연하며 소설에서도 이들이 포상의 대가로 현찰을 받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한다. 또한 이들은 다섯에서 일곱의 무리를 지어 다니며 심지어는 ‘무기를 가졌다는 이유, 자신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 폐테랄을 입증하는 표식을 달지 않았다는 이유, 민중협회 회원증이 없다는 이유’(437)로 테러를 자행했다.

### 프랑스 봉쇄와 아메리카주의

1838년 3월 28일부터 1840년 10월 29일까지 지속된 프랑스 봉쇄의 직접적 원인은 프랑스 출신 이민자에게 병역의무를 면제하고 부에노스 아이레스 거주 프랑스 시민권자들이 요구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라는 프랑스의 요구가 로사스에 의해 단호히 거절된 것에 있다. 1838년 3월 31일자 <가세타 메르칸털>지는 다음과 같은 로사스의 말을 전하고 있다.

협정을 통해서 양도될 수 있는 특권을 대포를 앞세워 요구하는 것에 대해, 아무리 힘없는 나라라 해도, 이 정부는 단연코 거부한다.<sup>18</sup>

로사스는 함대를 앞세우고 자신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프랑스에 머리를 굽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외교관례에 비추어 신임장을 제정하지 않은 프랑스 외교관과 양국의 현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이것은

18 “Bloqueo francés al río de la Plata”(2011), <http://es.wikipedia.org>

당시 아메리카 신생국이 동등한 지위에서 유럽의 대국을 상대한 것을 의미한다. 아메리카주의로 규정된 로사스의 이러한 사고는 그의 정적들에게는 야만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이들에게 있어 유럽은 문명의 세계였고 유럽을 좇는 것은 문화를 향유하는 이들이 갖추어야 할 규범인 반면, 자신들이 뿌리박고 사는 아메리카는 야만의 세계이며 아메리카적인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 무지한 이들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담론의 대표 저서가 사르미엔토의 『문명과 야만』이다. 칠레에서 망명 중이던 사르미엔토는 신문에 연재하던 동명의 칼럼에서 유럽은 문명, 아메리카는 야만으로 규정했다. 반면 카스타그니노(2009)는 로사스가 야만이라면 아르헨티나 전체가 야만이라고 비판했다. 몬테비데오의 반 로사스 진영이 프랑스와 결탁하고 그들의 돈을 받아 독립국이었던 아르헨티나를 공격하려 한 것이야말로 야만 중의 야만이라고 간주한 것이다. 마르몰은 아메리카주의로 표방되는 로사스의 국가관을 ‘민족감정을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한 독재자가 장기간에 걸쳐 행한 기만’(651)으로 매도했다. 동시에 ‘외세에 의존해서 자국의 이득과 권리를 희생시키고 국가를 팔아넘기려했던 사대주의자’(455)라면서 우니타리오를 비판했다. 그러나 우니타리오의 대표적 인물인 라바에는 외세 개입에 반대했었고, 오히려 로사스 타도를 위해 프랑스측에 보병부대 파견을 요구한 사람들이 5월 협회 문인들이었으며 마르몰도 이 중의 하나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비판은 상당한 모순이다. 로사스 타도 10여년 후에 이 소설이 완성되었다는 걸 감안한다면, 마르몰 자신이 자신들의 사대주의적 발상이 그릇된 것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우니타리오에게 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의 봉쇄로 인해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위시한 내륙지방의 경제상황은 악화상태에 있었다. 반대파의 저항에 덧붙여 아르헨티나 연맹 구성원의 민심이 이반된다는 것은 로사스에게 전혀 유리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했다. 1839년 4월 미국의 중재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 해 10월 프랑스는 마르틴 가르시아 섬을 점령함으로써 로사스를 더욱 더 압박하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남부해방군의 무력봉기로 고통을 당하던 로사스가 백기를 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들을 무력화시킨 로사스는 탄압을 강화시키는 강수를 두었다. 1840년 2월 영국 공사 맨더빌의 중재로 아라나 외교장관과 프랑스 제독 마르티니의 회담이 진행되나 프랑스 정부가 자국대표에게 충분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었다.

마르몰은 바로 이 회담 결렬 이후의 상황을 기술하면서 아메리카보다는 알제리와 중동문제에 더 관심을 쏟던 프랑스가 로저, 마르티니, 르블랑으로 이어지는 ‘프랑스 측 대표의 잦은 변동으로 지속적인 회담이 진행될 수 없었다’(89)고 기술했다. 소설은 특히 로사스의 외교적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로사스는 영국 공사 맨더빌을 독대한 자리에서 ‘프랑스의 해안봉쇄로 인해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이 영국의 무역’(133)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프랑스의 적은 영국, 아르헨티나이므로 적의 적은 친구이므로 영국은 우방인 아르헨티나를 도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으나 영국은 유럽의 세력균형유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 프랑스와의 관계악화를 원하지 않았다. 지지부진하던 회담은 두포트(Duport) 영사의 부임으로 활기를 찾으며 10월 29일에 협정을 체결한다. 마르몰은 이 협정이 소설의 시간적 공간 이후에 체결됨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봉쇄 해제 소식을 전한다.

마르몰은 로사스가 맨더빌에게 거짓 정보를 흘림으로써 그 정보가 영국 외무부를 통해 프랑스, 그리고 우루과이의 반대파에게 전해지도록 유도했으며, 그의 거짓 정보로 인해 몬테비데오의 반 로사스 진영이 악수를 두기도 했다고 했다. 이것은 사실이다. 소설의 시점과는 차이가 나나 1835년의 예를 들자. 당시 몬테비데오의 오리베는 리베라와 전투 중이었다. 로사스는 오리베가 부에노스 아이레스 군대의 지원을 기다리는 것처럼 맨더빌 앞에서 거짓 정보를 흘려서 리베라로 하여금 오리베를 공격하게 만들었고, 이를 미리 알고 대비했던 오리베가 승리한 것이다.

## 결론

본 논문은 이 소설에서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기술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라는 공간과 1840년의 5개월이라는 시간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이 소설에는 정계 인물들이 실명으로 등장하고, 이들 간의 공식 서한, 서류와 같은 사료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소설의 역사성은 충분하다. 이에 대해 베이라베(Alfredo Veirave)는 소설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 소설을 ‘역사소설’로 간주하는 이유는 이 소설의 무대가 역사적이며, 등장

인물과 사건이 아르헨티나 역사의 실존인물과 실제사건이기 때문이다(21).

그러나 마르몰이 기술해내는 몇몇 역사적 사실에는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음도 확인된다. 전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마르몰은 로사스의 외모를 ‘chocante’라는 부정적 의미의 형용사로 묘사하며, 마리아 호세파에 대해서도 ‘fea’, ‘vieja’, ‘maloliente’와 같은 부정적 의미의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역사가 혹은 소설가가 그려낸 모습과는 다르다. 또한 소설 전반에 걸쳐 로사스를 이중적 성향의 인간, 차가운 인물, 변덕스런 인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공사구분이 엄격했고, 조카를 입양해서 키웠으며,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불구가 된 부하에게 의리를 지킨 로사스의 긍정적인 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마르몰의 인물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인물은 마누엘리타이며 경찰총장 빅토리카이다. 빅토리카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마르몰이 5일간 투옥되었을 때 그가 자신에게 베푼 호의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마르몰의 인물 평가에 균형감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준다. 마르몰은 또한 로사스가 가우초, 인디오, 흑인, 몰라토와 같은 사회 소외계층의 지지만을 받은 것처럼 기술함으로써 로사스를 지지하는 다른 계층은 없었던 것처럼 오해를 주고 있다. 그러나 로사스는 이들 외에도 소상인 그룹과 같은 중산층, 아르헨티나 연맹 소속 페데랄 계열의 주지사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다.

『아말리아』에 등장하는 로사스 반대 진영 실존인물 대부분은 유니타리오와 5월 협회 회원들이다. 유니타리오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은 라바예이다. 마르몰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침공을 결행하지 않은 라바예를 우유부단한 지도자라면서 그를 비판했다. 그러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침공에 소극적이었던 라바예에게 프랑스측의 지원을 약속하고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민들의 협공을 약속했던 이가 바로 5월 협회 지도자였던 알베르디였고, 라바예의 군대가 1840년 9월 내내 그 약속 이행을 기다리느라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술을 생략하고 있다. 반대로 마르몰은 유니타리오들이 외세를 끌어들이 장본인인 것처럼 기술함으로써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다.

마르몰이 그려낸 1840년 정치 상황은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편이다. 반대파 탄압이 극에 달했던 이 해, 로사스의 사조직이던 마소르카의 만행 역시 극에 달했다. 마르몰은 이들이 하층민 출신이며 경제적 이유로 마소르카 조직원이 되었다고 암시하면서 당시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가지의 공포분위기를 생생히 그려냈다. 마소르카가 하층민으로 무식하다면 이들의 총 대장인 로사스

역시 무식하고 교양 없는 인물이어야 했다. 마르몰은 그런 인물의 전형으로 가우초를 조명했고, 로사스의 아메리카주의 역시 야만의 전형인 가우초적 사고 방식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마르몰은 로사스의 아메리카주의가 프랑스의 침공에 맞서서 아르헨티나의 주권을 지키려했다는 점은 간과한 반면, 아메리카 주의가 독재의 한 도구였음을 강조함으로써 편향적 역사관을 드러내고 있다.

로사스에 대한 마르몰의 비판적 시각은 그의 정치성향과 깊은 관계가 있다. 마르몰은 5월 협회의 일원이었다. 5월 협회는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에체베리아가 주도한 모임에서 태동했다. 이들이 가장 선호했던 작가는 낭만주의 거장 빅토르 위고였다. 따라서 낭만주의의 자유사상은 가장 존중된 덕목이었으며, 이 사상이 태동된 유럽, 특히 프랑스는 이들의 모델이었다. 이들은 20년대 우니타리오를 무식한 집단, 무능한 노인들로 간주했으며 로사스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2기 로사스 정권이 독재를 강화시키면서 이들을 규제하자 1839년 이후 에체베리아를 위시한 많은 문인들이 망명의 길을 택했고 반 로사스 운동의 선봉에 섰다. 무인이 아니었던 이들은 몬테비데오에서 발행하는 신문과 잡지를 통해 반 로사스 운동을 펼쳤으며, 1840년에는 프랑스의 협조를 받아 자신들의 비판대상이었던 우니타리오와 결탁해 로사스 정권을 타도하려했다. 마르몰 역시 1839년 브라질을 경유한 후 몬테비데오에 정착했다. 베이라베는 마르몰의 문학계적 전체가 반 로사스 투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그가 1839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감옥에서 쓴 시 ‘비탄’(Lamentos), 소설 『아말리아』, 1852년 구티에레스(Juan María Gutiérrez)에게 바친 ‘헌시’(Brindis)는 모두 로사스 체제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한다. 마르몰은 1852년 로사스 정권 전복 후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돌아와 상원의원, 브라질 전권대사, 국립도서관장직을 수행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아말리아』는 1851년 마르몰이 몬테비데오에서 발행했던 신문에 연재되기 시작했으며, 로사스 정권 전복 후인 1855년에 2부까지 완성해서 출판된다. 마르몰이 소설을 쓰기 시작한 1851년은 로사스 정권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해다. 반 로사스 운동에 앞장섰던 마르몰은 로사스 정권을 타도해야 할 당위성을 논해야했으며 유럽을 문명의 전형으로 간주했던 자신들의 태도를 합리화해야했을 것이다. 『아말리아』가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작가의 정치적 성향에 의한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면서 편향적 시각의 역사를 드러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참고문헌

- Castagnino, Leonardo(2009), *Juan Manuel de Rosas. Sombras y Verdades*, Buenos Aires: Ediciones Fabro.
- Echeverría, Esteban(1999), *El Matadero*, Buenos Aires: Editorial Cántaro.
- Luna, Félix(2004), *Juan Manuel de Rosas*, Buenos Aires: La Nación.
- Mansilla, Lucio V.(2008), *Rosas, Ensayo histórico-psicológico*, Buenos Aires: Claridad.
- Mármol, José(1968), *Amalia*, Buenos Aires: Kapelusz.
- Roffo, Anaía(1999), *Félix Luna, Palabras de un historiador, En busca de la memoria argentina*, Buenos Aires: Editorial Sudamericana.
- Sarmiento, Domingo Faustino(1997), *Civilización y Barbarie. La Vida de Juan Facundo Quiroga*, <http://www.elaleph.com>
- Verlichak, Carmen(1999), *María Josefa Ezcurra, el amor prohibido de Belgrano*, Buenos Aires: Editorial Sudamericana.
- “Bloqueo francés al río de la Plata”(2011), <http://es.wikipedia.org>
- “Juan Manuel de Rosas”(2011), [http://es.wikipedia.org/wiki/Juan\\_Manuel\\_de\\_Rosas](http://es.wikipedia.org/wiki/Juan_Manuel_de_Rosas)
- “Juan Manuel de Rosas”(2011), <http://www.lagazeta.com.ar/rosas.html>

Article Received: 2011. 12. 20

Revised: 2012. 04 .03

Accepted: 2012. 04. 26